

〈사조선록 역주 3: 명사의 조선 사행록 2〉

공용경, 〈사조선록〉 (1536)
中 pp.280-370

1. 한성 체류 (pp.280-299)

(280) “태평관에서 장 장과¹의 육십 운을 잇고”

- 자연 풍경에 대한 감상 (긍정적)
- 조선의 문명에 대한 칭찬, 인정
 - (284) “누가 말했나 구석지고 누추한 먼 나라가 보잘 것 없다고, 의관과 옛 풍속이 숭상되고 있음을 이미 보았다.”
 - (286) “북녘에서는 그저 석목에 기대어 바라볼 뿐, 남쪽 어느 곳을 가리키며 주공에 대해 묻는다.”
 - (289) “[한성 오는 길에] 기자의 옛 터에 경의 표하고, 개성의 큰 군진 바라보며 고려인의 옛 터전 찾아보았다.”
- 자순의 의무에 입각, 자연과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자세히 관찰, 조사 - 개인적 관심사 표현
 - (282) “산골 백성들 잡역 위해 익숙하게 쫓아다니고, 역참 관사에선 장막 치고 용승하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한다. / 상처 입은 너새는 부역 거두는 정치 고달프고, 날아가는 기러기는 피로와 쇠약을 절감한다. / 부여의 옛 길에는 황폐한 요²가 남아있고, 평양의 높은 담장은 요충지에 마련됐다. / 수풀 가득 우거진 길이 험한 요새를 열고, 문안에 가득 찬 농작물과 옷감이 흉년을 대비한다. / 中邦과 경계가 구획되어 향음이 다르지만,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도 풍광과 기후가 다르지 않다.”
 - (285) “쪽진 머리에 광주리 얹은 시골 여인네가 분부하고, 옷깃 열고 머리 흘뜨린 시로 아이가 쫓아다닌다. / 강하가 중화의 명승지보다 못하지 않고, 인물은 오래전부터 기운과 국량이 빼어났다. / 깃털 뽑고 푸른 깃 옷 입어 하인임을 알 수 있고, 옷자락 끌고 검은 초립 써서 고용된 장정임을 구별한다. / … / 통역하는 관리 모두 유생에서 선발되고, 군읍의 관원은 무관 직무에 능한 자 많다.”
 - (288) “백성의 풍습 채집해서 우리 일에 종사하니, 공무에 사역되어 지친다 감히 말해도 천심이야 기뻐하지 않겠나. / … / 거룩한 황제의 도량은 크고 넓어서, 만방을 받아들여 휩싸고 밖으로 내치는 일이 없다. / 조선이 법도를 따른다 해서, 깊고 넓은 큰 은혜를 두텁게 베풀었다.”
 - (290) “그 지역 풍습을 자순하려, 홀로 사방을 두루 찾아 내달렸다. / 혹은 난간에 기대 멀리 바라보기도 하고, 혹은 천천히 걸으며 옷깃을 풀기도 했다.”

¹ <사조선록 역주> 2권의 <보안당정정방주선생봉사록>의 저자 장영 (1460년 사행)

² 변방에 설치된 경계, 나무 울타리, 돌담, 도랑 등의 시설물

(291) “내 땅이 아님을 내 잘 알고 있지만, 정이 실로 정성스러워 마음이 돌아간다. / 고정된 생각 풀고 다양한 생각을 넓히면, 풍광이 마음과 어우러져 나와 어긋나지 않는다. / 삼대의 울골은 도를 생각하면, 이 백성도 실로 내 동포들이다. / 어찌 저쪽과 이쪽의 간격이 있겠는가, 오로지 아래 위가 엇갈리지 않을 뿐이다. / 내 어렸을 때 이 특이한 옷차림을 좋아해서, 장차 四荒에 마음을 쓰려 했다.”

2. 이별, 압록강까지 귀국 여정 (pp.299-323)

- 자연 풍경에 대한 감상, 백성의 생활 모습 관찰
 - 가는 길에도 관마다 연회
 - 선대 사신들의 계승 의식
 - (302) 파주관에서, 오 황문의 ‘동파관’ 운을 써서
 - (303) 임진강을 다시 건너며, 오 용진의 ‘한강’ 운을 써서
 - (303) 동파관에서 달빛 감상하며, 왕공과 사마공의 운을 써서
 - (316) 숙녕관의 누각에 올라, 금,장 두 사자의 운을 이어서
 - (319) 백상루에 다시 올라, 진 급사의 운을 이어서
 - 기자 등 중국과 한반도의 역사적 관계 상기
 - (304) 고려의 옛 궁궐을 구경 (개성)
 - (313) 기자묘 참배 (평양)
- (323) 강가에서 정 판서와 동번 도읍의 여러 현사들과 헤어지다
 “객관에서 함께 한 지 한 달 남짓 되었는데, 갈림길에서 헤어지니 그 마음 어떠할까.”

3. 조선 관원들과 교류한 글 (pp.324-340)

- 유교적 덕목 칭찬, 덕담
- 대부분이 한 달 여의 여정 내내 수행한 사람들(정2품에서 정7품까지, 특히 역관들)에게 헤어질 때 써준 송별시 - 상황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감사와 아쉬움의 심경을 솔직하게 표현

(절충장군 침지중추부사 이화종에게) (329)

“통역해준 사인 이생은 동국에서 살면서, 화어를 배워서 터득하여 남북 말을 다 잘한다. / … / 내 패수로 와서 조선에 다다르니, 제나라 사람은 한 명인데 초나라 사람은 열 명이어서 소리가 요란했다. / … / 그대가 때때로 와서 한 번씩 입을 열어주어, 이쪽저쪽이 말을 듣고 자주 머리 끄덕였다.”

(통덕랑 사역원 판관 홍겸에게) (330)

“동번에서 나를 수행한 지 한 달이나 되었고, 맞고 보내며 왕래하며 부지런히 쫓아다녔다. / 판서의 질문과 답변이 하루 종일 어지러웠지만, 귀에 드는 전언이 입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 전달하는 뜻이 단지 한 조각 말 사이에 있었으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시고 서 있어도 피로한 얼굴 보이지 않았다.”

(사역관 정 김산해에게) (332)

“[한성에 오니] 인물은 자못 중국과 비슷해도, 나라 말은 시끄럽게 다투는 것 같았다. / 재잘거리는 말이 분명하지 않고, 어지럽게 뒤섞여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 아침저녁으로 연회가 있었는데, 말을 하고 싶어도 알아듣기 어려울까 부끄러워했다. / 그대 만나 한 번 뜻을 밝혔더니, 손과 주인의 정이 잘 전달되었다. / … / 궁궐 아래에서 한 번 만나면, 한 평생 그대 잊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리라.”

(전의감 주부 유지번에게) (335)

“전의인 유 주부는, 거동이 가장 자상하고 신중하다. /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한 번씩 읊하고, 이를 처리함에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는다. / 모시고 서서 게으른 기색 거의 보이지 않고, 구부리고 걸으며 옷자락 단정히 끈다. / 비록 중국말은 통하지 않지만, 말의 뜻은 마음으로 자못 깨닫는다.”

(평안도의 여러 관원에게) (338)

“... 부절이 나뉘어서 모두 평안도에 속했지만, 이들은 모두 황조에 일통된 사람들이다. / 그대들 여러 관원들이 말 타고 활 쏘는 정예 병사임을 잘 알고 있어, 저녁나절 산언덕에서 힘 겨루는 것 익히 보았다. / 백성 다스리기 위해서는 문술 쓸 줄 알아야 해도, 큰 공을 쫓기 위해 책 읽는 일을 줄였다.”

4. 특정 장소와 책에 헌사 (pp.340-354)

취병산 유람기

- 동월³이 이름을 지은 ‘총수산’에 유람 갔다가 근처에 있는 ‘취병산’의 이름을 직접 지어줌 (‘비취색 나무들이 병풍처럼 에워싼 산’이라는 뜻)

“굴조개를 구워서 몇 잔 마신 뒤에,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키며 형조판서에게 ‘이름이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아직 없다’라고 대답했다.”

“내 생각에는, 이 산이 기이하고 괴상하며 깎은 듯 높이 솟은 모양에서는 비록 총수산에 미치지 못하지만, 존귀하고 엄숙하며 단정하고 중후한 모양에서는 아마 조금도 못하지 않을 것이다. ... 총수산은 이름을 동공[동월]에게서 얻어 세상에 드러났는데, ... 비록 내가 감히 동공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이 산의 이름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또 우리들이 그 위에서 술 마시고 시가를 읊으며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이 또한 이 산의 한 행운이라. ... 이 산에 빛을 지게 되지 않을까. 이 산의 신령은 장차 필시 나를 지기로 삼을 것이다.”

공자묘 참배기

- 성균관 공자묘를 참배

“[선생과 유생들이] 옷과 두건은 정돈되었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행동을 예의에 맞게 해서, 중화의 기품을 알맞게 갖추었다. ... 성인이 도를 가르친 것이 얼마나 멀리까지 미쳤고 황제의 교화가 사람을 만든 것이 얼마나 융성하게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으며, 기자가 남겨준 여운과 유풍을 알 수도 있다.”

“중국이 이적과 다른 까닭과 인류가 금수와 구별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오륜]에 있다. 이를 온전하게 오로지 하는 자를 가리켜 王이라 하고, 이를 섞는 자를 일러 覇⁴라 하며, 여기서 벗어나는 자를 夷라고 한다.”

“지금 동번은 우리 皇明의 교화를 입어 모화하고 의로움을 숭상한다. ... 실로 이른바 천지와 같아지고 고금을 초월해서 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 무릇 왕실을 마음으로 따라 영구히 번영⁵을 굳게 지키는 것이 바로 성인이 가르치는 도의 큰 실마리인데, 오늘날 조선의 군신이 적절하게 힘을 쓰는 것을 내가 이번 행차에서 모두 보았다.”

정 판서의 <조선일록>을 題하다

- 형조판서 정사룡의 1534년 사행록에 서평

<양천세고>의 서문을 쓰다

³ <사조선록 역주> 3권의 <조선부> 저자 (1488년 사행)

⁴ 王者와 대비되는 말로서, 도덕이 아닌 무력으로 제후의 으뜸이 된 자를 이르는 말 (e.g. 춘추오패)

⁵ 왕실을 에워싸 지키는 울타리 같은 제후

명히헌 記

“[의정부 좌의정 김안로의] 집의 서쪽 편액에 ‘明虛’라 하고, 그 우인인 정 판서에게 부탁해서 한 마디 해달라고 청하였다.”

5. 의례에 관한 지적 (pp.354-365)

▪ 교외 의례 문제

- 국왕이 교외로 나와서 직접 조서를 영접할 때 오배, 삼고두 하라
- 이 과정을 백성들 및 생원들이 특히 알게 하라

공용경:

“의주⁶를 바쳤는데, 내가 읽어보니, 그 가운데에 국왕이 교외로 나와서 단지 국궁만 하고 조서를 맞을 뿐, 다섯 번 절하고 세 번 고두하는 의례는 없이 지나가고, 또 생원들이 나와서 조서를 영접하지 않았다. ... 조서를 영접하는 의례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중국과 같지 않다. ... 어떻게 임금을 공경한다 하고 예의를 지키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생원과 같은 이들은 예를 익히고 성인의 가르침에 교화되어 감복하는 것을 봐야 할 터인데, 교외로 나와서 조서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교는 이미 먼저 상실된 것이니, 어떻게 이를 두고 예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대들 국왕이 조정의 예를 다 공경함을 전하여 알리게 하면, 그대들 나라 사람들이 그대들 국왕의 예를 다 공경할 줄 알 터이니,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일인 것이다.”

“우리는 그대들 국왕이 평소에 현명하고 禮義를 지키는 나라라고 들었고, 경역 안으로 들어온 뒤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이 말 한 마디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다.”

조선의 응답:

“의주에 개재된 것은 본국이 행한 지 이미 오래되어, 오늘날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홍무⁷ 연간에 반포한 것을 받들어 지키는 것 뿐이라”

공용경:

“본래는 안남국에도 같이 관리를 보내려 했지만, 뒤에 예부에서 조사해서 보고하기를 안남국 안에서 스스로 난을 일으켰다고 한다. ... 이 때문에 그대들 나라에만 오게 되었다. ... 이는 그대들 나라의 일과는 관계가 없어 단속하지 않았다.”

“이번에 조서로 알린 것은 황자의 탄생인데, 이것도 舊例에 있는 것인가”

조선의 응답:

“[조선이] 마침내 의주를 바꾸어 가지고 왔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그대들 국왕은 정말 예를 알고 조정을 공경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 세자가 베푸는 연회에서 배석 문제

“[왕세자가 국왕의 연회에서와 같이 동,서쪽으로 나누어 앉으면] 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구별이 없는 것이고 ... 이른바 손이 동쪽 주인이 서쪽이란 것은 걸어갈 때를 가리켜 하는 말이 지, 자리에 앉는 것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다. ... 내 말에 의하면, 우리 두 사람은 윗자리에 앉고, 왕세자는 동쪽 자리에서 서쪽을 향해 조금 북쪽 가까이 앉아서, 대신들과 구별됨을 밝히면 된다. 이렇게 하면 분수에 지나친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면서, 또 그대들 나라 부자의 예를 다 지킬 수 있다.”

⁶ 의식 절차의 기록

⁷ 明을 건국한 태조의 재위 시기 연호

▪ 귀국길에 선물을 거절함

“동변이 기자가 옛날에 봉해진 곳이었고 평소에 예를 지켜 도로써 선해질 수 있는 곳이라 자칭하고 있음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경역 안으로 들어온 이후, 현명한 번왕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인품이 밝고 맑아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

“... 통역관이 다시 삼가고 성실하게 선물을 보낸 뜻을 설명했지만, 감히 받지 못하고 벽에 붙여놓았으니, 일부러 공손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은 아니다. ... 현명한 번왕에게서 분에 넘치게 친절을 받았으니, 예의는 이미 지극하였고 의리도 벌써 극진했는데, 어찌 물건에 있겠는가. 군자는 물건으로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

6. 유이징의 발문 (pp.365-370)

▪ 1937년의 중국인이 <사조선록>에서 얻는 교훈

“조선의 사대 의례는 이 때에 가장 융성하였다. ... ‘오늘날 사람들이 이 기록을 읽는다면, 당연히 우리 민족의 빛나는 공훈에 대해 더욱 감탄할 것이다.’ ... 이는 역시 바로 우리 백성들이 을부⁸를 익히 알지 못한 것에 말미암은 것으로, 이로 인해 울타리를 내놓기에 이르고, 나아가서는 堂과 방의 깊숙한 곳까지 내어놓기에 이르렀다. 각자가 지나간 일에 대해 익히 듣고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지 알게 한다면, 게으름을 채찍질하고 치욕을 마음에 새겨 반드시 그 기운을 만들어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 삼한이 외톨이로 남겨졌다가 역시 다른 족속에게 의지해서 우리의 흰 골수를 소금에 절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⁸ 역사서